



창조론 연구의 다면성

한국창조과학회가 1981년 1월 31일에 창립총회를 했으니 한국에서 본격적인 창조론 운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35년이 가까워온다. 하지만 창조론에 관한 한국 저자들의 진지한 연구물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동안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나 교회의 호응, 지도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국제 창조론 운동을 이끄는 저작들이 많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이는 창조과학 운동으로 대변되는 지난 한 세대 동안의 국내 창조론 운동이 신학적 논의를 낮게 보고 반지성적인 근본주의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창조론 연구의 세 차원

창조론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성경/신학적 연구, 둘째, 과학적 연구, 셋째,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이다. 그러면 왜 창조론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창조론은 세 분야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학제연구(interdisciplinary study)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다리 세 개 있는 책상이 어느 한 다리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세 분야에 걸쳐 있는 창조론 연구에서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창조론 연구가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쟁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창조론에 대한 다면적인, 혹은 학제적인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창조론 운동의 전면에 섰기 때문이다. 반성의 여지가 없는 무생물, 혹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을 연구

하는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사람을 다루는 인문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에 비해 생각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 다면적 고찰이 필요한 연구를 단순 사고를 가진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앞장 서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처음 창립될 때 정관에 정회원 자격으로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아직까지 그 조항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항이 초기에 창조과학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권위를 중시하는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립준비위원으로, 그리고 창조과학회 창립멤버로 참여한 필자도 그렇게 회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 때는 창조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학적 연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양승훈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 물리교육과, KAIST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MS, PhD)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과학사(MA)를, 휘튼대학에서 신학(MA)을 공부했다. 지금까지 『창조와 격변』, 『다중격변창조론』,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창조와 진화』, 『프라이드를 탄 돈키호테』 등 35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대폭발과 우주의 창조』, 『창조연대논쟁』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창조론 오픈포럼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 2회 출간되는 창조론 학술지 <창조론 오픈포럼>의 공동편집인이다.

하지만 필자는 후에 신학과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너무 좁았음을 알게 되었다. 창조론 운동에서 과학적 측면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성경/신학적 연구와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된 것이다. 창조론 연구를 향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과학적 측면은 배의 엔진의 출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성경/신학적 연구나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는 항해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엔진의 힘이 좋아도 항해사가 시원찮으면 항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원찮은 초보 항해사가 키를 잡았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항해사가 시원찮다면 차라리 엔진의 출력이 작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교회나 사회에서의 창조론 운동을 회고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운동, 어느 단체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 교회나 사회에서의 창조론 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론 운동으로 인해 일어난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 외부의 공격은 한국 기독교 지성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창조론 운동의 다면적 측면을 무시하고 어느 한 쪽으로, 특히 과학적 측면으로 치우쳤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창조과학 운동이 처음 시작된 미국, 그 중에서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안식교(재림교)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안식교로부터 창조과학을 들여왔던 헨리 모리스 등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자들도 그러했다. 하지만 안식교는 하나의 기독교 섹트(sect)로서 자기들만의 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자기들 전통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과감하게 추방했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큰 파열음이 들리



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개신교 진영에서는 창조과학으로 인해 미국 복음주의 진영이 근본주의 진영과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그 분열과 다툼의 핵심에는 성경/신학적, 과학사/과학철학적 함의가 큰 창조론 운동을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과학자, 공학자들의 손에 맡겨두었다는 뼈아픈 사실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창조론 연구가 삼차원적이어야 할까? 먼저 성경/신학적 측면부터 생각해 보자.

2. 성경/신학적 측면

말할 필요도 없이 창조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경신학(해석학)은 창조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성경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성경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는 순수하게 신학적인 논의의 영역이지만 동시의 창조론 연구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은 어떤가? 성경은 창조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조직신학은 창조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며, 사도신경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신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에 대한 바른, 혹은 건강한 시각과 이에 기초한 신학적 반성이 창조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창조론과 관련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들은 신학적 반성이 부족한 사람들, 다시 말해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 과도한 힘과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3. 과학사/과학철학적 측면

다음에는 과학사/과학철학적 측면을 생각해 보자. 흔히 역사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만을 생각하겠지만 실은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에는 해당 학문의 역사가 중요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경제학에는 경제사가, 정치학에는 정치사가, 음악에는 음악사가, 과학에는 과학사가 있다. 그러면 왜 모든 학문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역사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기의 학문의 발전 내지

변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학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온 학문의 발자취를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올바른 자취, 그릇된 자취를 반성할 때 우리는 현재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의 학문적 지향점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론 운동의 배경이나 역사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과학과 신앙, 좀 더 구체적으로 헬라문화의 자연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는 많은 상호작용을 했다. 중세에도 과학과 신학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 왔다. 초대교회에서 히브리파 교부들과 헬라파 교부들의 논쟁, 13세기 파리대학에서의 금지명제 사건, 17세기 갈릴레오 재판이나 19세기 진화론 등의 등장으로 과학과 기독교는 때로는 동지인 듯, 때로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듯이 지내왔다. 이런 과학과 기독교의 역사적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론 논쟁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가 분명해진다.

4. 과학적 측면

마지막으로 말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분야는 과학적 측면이다. 앞에서 창조 연구에서 과학적 측면을 과도하게 중시할 때 닥치게 될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과학적 측면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학자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직자들의 가운데보다 과학자들의 가운데가 더 신뢰할만하고 권위 있게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 연구는 성경 연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잠정적이지만 과학은 태초의 지구 상태나 우주의 형성 과정, 지구나 우주의 연대, 오늘날 지구의 운행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앞에서 언급한 성경/신학적 연구나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

지만 우리는 과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이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까지 넘보는 것을 잘 감시해야 한다. 창조론 연구에서는 어디까지나 앞의 두 연구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과학적 연구는 그것들의 기초 위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과학적 연구가 든든한 성경/신학적, 과학사/과학철학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창조론 운동에서 목도하는 분열과 다툼, 반지성적 태도는 바로 그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세 가지 계시

지금까지 얘기한 창조론 연구의 세 측면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세 가지 계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특별계시의 영역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에 비해 특별계시의 우월성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자연신학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우선순위를 바꿀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이를 체계화한 신학적 고찰은 창조론 연구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계시의 영역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우리의 이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자연계시의 영역을 연구하는 것이 곧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계시는 어디까지나 특별계시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거나 특별계시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만일 자연계시가 특별계시를 무시하거나 압도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시적인 피조세계는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로부터 창조신앙을 확립하는 데는 특별계시의 인도가 필수적이다.

셋째, 역사계시의 영역이다. 성경과 자연에 이어 역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 삼의 계시의 통로이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고, 대부분의 성경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의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연구하는 것은 창조의 또 다른 차원의 창조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근세 교회를 거치면서 교회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창조론 연구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말씀(성경/신학)과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사/과학철학)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균형 있게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영역에 대한 연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창조론 지도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창조론 운동이 도리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세 분야를 모두 연구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 전공의 학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학술적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